



2 NH농협금융,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제정 | 4 농식품부, 'AI 농업·농촌 대전환 전략' 발표 | 6 경기도, 가축인공수정사 대상 안전장구 지원 추진 | 7 K-푸드, 미국 최대 식품박람회서 3200만 달러 상당 성과

## 농식품부, 동물복지 정책참여단 모집



새싹보리 먹이 먹고 있는 반려견 자료사진 (농촌진흥청 제공)

### 봄철 반려동물 건강관리·펫티켓도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과 동물과의 공존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하는 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채널로, 반려동물을 키우며 겪은 불편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비반려인의 관점에서 필요한 펫티켓 등 동물복지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3월 13일부터 2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봄철을 맞아 반려동물 건강관리 요령과 산책 시 지

켜야 할 펫티켓도 함께 안내했다. 봄철은 기온 상승과 야외활동 증가로 반려동물의 외출이 늘어나는 시기지만, 벼룩·진드기 등 외부 기생충 활동이 활발해지고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반려견은 풀숲이나 잔디와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 외부 기생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정기적인 예방약 투여가 필요하다. 산책 후에는 귀 뒤, 목 주변, 발가락 사이 등을 확인해 진드기 등이 붙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좋으며,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심장사상충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예방약 투여도 권장된다.

반려묘는 환절기 면역력 저하로 허피스·칼리시 바이러스 등 상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재채기, 콧물, 발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허

피스 바이러스는 눈물·결막염, 칼리시 바이러스는 입안 궤양으로 인한 식욕 저하가 동반될 수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재채기나 콧물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식욕 부진, 눈곱, 결막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동물병원을 방문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활동량이 늘어나는 봄철에는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 반려묘는 장난감이나 캣타워를 활용해 실내 활동량을 늘리고, 반려견은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간식이나 염분이 많은 음식은 제한하고 음식량이나 배뇨량 변화를 관찰하는 등 평소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수의사회도 정기적인 동물병원 방문과 건강검진을 권장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생식기 질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

려견과 반려묘의 중성화 수술도 권장된다. 특히 봄철은 고양이 발정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울음 등 행동 변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술 이후에는 넥카라나 환견복·환묘복을 착용하고 수술 부위를 정결하게 관리하는 등 회복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공원이나 산책로 등 공공장소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반려인의 펫티켓 준수도 중요하다. 외출 시 동물등록과 인식표 착용으로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해 돌발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배설물은 즉시 수거하고 물과 위생용품을 휴대하는 등 기본적인 공공 예절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반려견이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리 와', '기다려' 등 기본적인 행동 훈련을 해 두는 것도 안전한 산책에 도움이 된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2025년도 우수 농축협 시상식 개최(농협 제공)

### 농협, '2025년 우수 농축협' 시상...120곳 우수 업적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10일 서울시 중구 본관에서 '2025년도 우수 농축협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농축협 '종합업적평가', 신용사업 종합평가인 '상호금융대상', 도시농축협 역할지수 평가 등 3개 부문에 대한 시상 진행됐다.

종합업적평가에서는 전국 1,110개 농축협 가운데 경제·신용·교육지원사업 전반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120개 농축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상호농협·신북농협·군서농협·간동농협·영암축산농협 등 5개 농축협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상호금융대상은 농축협 신용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경영 내실화와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최우수상 20개소 등 총 132개 농축협이 수상했다.

땅끝농협이 대상을 수상했고, 총 7개 농축협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도시농축협 역할지수 평가는 도농상생, 경제사업 이행, 농(農)의 가치 확산에 대한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영등포농협(대상), 남서울농협·성남농협(최우수상) 등 총 9개 농협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강대영 기자  
kya0712@daum.net

## 농촌진흥청, 중남미와 농업기술 협력 강화

### 식량안보·기후변화·디지털 농업 등 신규 과제 추진 승인

농촌진흥청은 3월 9일부터 10일까지 파라과이 아순시온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제5차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LFACI)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의장국 주최로 3년마다 열리며, 차기 의장국 선출과 지역 현안 해결 및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총회는 파라과이 농업연구청(IPTA) 에드가 에스테체 청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으며, 카를로스 알시베아테스 히메네스 디아스 파라과이 농축산부(MAG) 장관과 신현우 주파라과이 대사대리가 참석해 축하했다.

히메네스 디아스 장관은 기후변화와 디지털 농업 전환 등 현안을 해결하고 소농 소득 증진을 위한 중남미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KoLFACI 사업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총회에서는 차기 의장국을 선출하고, 총회 개최국 및 시기, 신규 과제 선정 등을 결정했다. 페루와 콜롬비아가 차기 의장국과 부의장국으로 각각 선출됐으며, 차기 총회는 2029년 페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남미 지역 농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과제 3개(식량안보, 기후변화, 디지털 농

업)도 선정돼 2027년 추진이 승인됐다. KoLFACI는 중남미 지역 공통 농업 현안을 해결하고 소농 생활 개선을 위한 다자간 기술협력 사업으로, 현재 14개 회원국이 16개 과제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다.

농촌진흥청 최광호 기술협력국장은 "이번 5차 총회는 대한민국 농업기술이 중남미 농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와 의의를 돌아보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농업 기술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3월 9일과 10일(현지 시간) 이틀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있는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제5차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콜파시, KoLFACI)\*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농촌진흥청



## 산림 100m 이내 영농부산물 등 소각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소각,**  
당신의 생명도 태울 수 있습니다